

이소영의 '우리지역 우리식물'



소쇄원에는 파초가 산다

'Right place, wrong person(맞는 장소, 잘못된 사람)' 가수 알엠(RM)이 2024년 발매한 솔로 앨범의 제목이다. 그는 본인이 속한 사회, 조직, 집단과 어울리지 않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떠올리며 앨범 제목을 정했다고 한다.

나 또한 평소 '나 여기 있는(있어야 되는) 거 맞아?'란 생각을 자주 한다.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 나에겐 당연하지 않을 때, 만족하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란 생각이 들 때, 모두가 열광하는 것에 공감할 수 없을 때..... '잘못된' 나는 '맞는' 다수와 동떨어진 존재처럼 느껴지고 명해진다. 맞은 건 나고 잘못된 건 다수일지라도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한편 잘못된 당사자가 내가 아닌 타자일 때, 가령 '사람' 자리에 '식물'을 대입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맞는 장소에 있는 이상한 식물'. 이 부조화는 되레 '이색적' '특별한' '힙한'이란 수식어를 달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엔 장소, 환경에 맞지 않은 식물 천지다. 서울 시내의 백화점에는 서울에 사는 식물이 아닌 멕시코 해발 500m 건조한 나뭇가지 위에 분포하는 틸란드시아가 살고, 강원도의 층고 높은 카페에는 아르리카 사막 원산인 산세베리아가 있다.

우리가 열광하는 대상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법한 존재가 아니라 '왜 거기 있는 거지' 싶은 그런 이상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하다.

전남 담양군에 자리한 명승 제40호 소쇄원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이다. 이곳엔 배롱나무, 버드나무, 단풍나무 등 우리 자생식물과 오래전부터 심어져 온 재배식물이 있다. 정원을 걷다 보면 그중 유난히 눈에 띄는 식물이 있으니, 그것은 제철당 한편에 자리한 파초다. 바나나와 닮은 파초는 이국적인 모습으로 소쇄원을 비롯한 남부지역 옛 정원에 심겨지고 문학, 예술 작품의 주인공이 되었다.

파초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풀로, 이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측컨대 고려 문인들에 의해 중국에서 도입된 게 아닐까 싶다.

소쇄원에는 우리나라 자생식물뿐만 아니라 매실나무, 복사나무, 치자나무 등 중국 원산의 식물이 다수 심어져 있다. 파초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파초를 본 사람들이 말한다. "이거 바나나인가?" 파초와 바나나는 파초와 파초속으로 언뜻 보아 닮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도 형태도 다르다. 열대식물인 바나나는 우리나라 노지에 살 수 없지만, 온대식물인 파초는 영하 15도까지 견딜 수 있어 우리나라 남부지역 노지에서 재배된다. 둘은 열매의 형태도 비슷하다. 다만 파초가 바나나보다 결실성도 떨어지고, 열매도 가늘고 맛이 짝이 식용하지 않는다.

대신 파초는 바나나와 닮은 이국적인 너른 잎을 무기로 관상용 화훼식물로 사랑받았다. 조선시대 사대부들

은 풀이지만 나무처럼 크게 자라는데다 커다란 잎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운치 있고, 빗방울이 잎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운 파초에 매료되어 정원에 심었다. 덕분에 파초는 옛 풍경화와 정물화뿐만 아니라 인물화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식물이 되었다. 이국적인 식물을 통한 옛사람들의 과시욕을 엿볼 수 있다.

소쇄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래된 절에는 파초가 많다. 지난 여름 순천 송광사에서서도 너른 잎의 파초를 만났다. 파초는 절에 심기는 단골 식물이다. 불교에서 이들은 인간 존재의 무상함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식물의 줄기를 깎싸고 나오는 잎을 엽초라 하는데, 파초의 엽초는 증첩되어 즐기처럼 곧게 자란다. 이것은 즐기 아닌 가짜 즐기다. 이 가짜 줄기에 빗대어 불교에서는 파초가 인간사의 무상, 육신의 덧없음을 가리키는 식물이 되었다.

이렇듯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탐미의 대상으로 정원에 파초를 심고 문학, 예술 작품에 파초를 등장시켰다. 불교에서 파초는 육신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식물로 절에 심어졌다.

탐미의 대상이자 덧없음의 상징인 파초. 극과 극의 두 의미 중 무엇이 파초의 본질에 가까울 것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이 식물에 과학적 의미 부여해 온 덕분에 파초는 말도 많고 변칙적이고 변영했다는 것이다. 사실 파초로서는 이것이면 됐다.

<식물 세밀화>

의료칼럼

어머니와 백내장



김재봉 광주신세계안과 원장

코로나를 핑계로 수년 간 고향에 내려가지 않다가 명절을 앞두고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부모님을 보니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예전 같으면 한상 가득 차려주시던 명절 음식 대신 만사 귀찮고 힘들다며 외식을 하자고 하셨다. 식당 계산에서 헛발발을 듣고 씩씩해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하니 노동자가 희미해진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등산과 수영 등 신체 활동을 즐기시며 건강에 자신이 넘쳤던 어머니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다.

안질환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백내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안과를 찾았고, 예상대로 백내장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당장 수술을 하지는 나의 제안을 거절하셨다. 그동안 자식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어 무척 속상했다. (친한 고등

학교 후배가 어머니를 모시고 안과에 와서 토로한 심경이다.)

위의 사례와 같이 백내장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으로 노화가 주요 원인이다. 초기에는 노안으로 오인하게 되는 시력 저하 증상과 함께 뿌옇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점차 진행되면 서 빛 번짐이나 눈부심이 심해지며 밤 운전이 어려워지고 복시 현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치료는 초기에는 약물로 증상의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사용하는 렌즈는 환자의 직업, 취미, 생활 습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와 눈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형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수술 후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이다.

따라서 수술 전에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고, 비용 할인 등 단순한 가격 요인보다는 다양한 맞춤형 렌즈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배는 설득 끝에 어머니를 모시고와 백내장 수술을 해드렸다. 어머니의 연령, 활발한 야외 활동, 건강 등을 고려해 그에 맞는 수술을 골라줬다. 수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보여 어머니가 행복해하신다는 감사 전화까지 받았다.

노년이 되면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가 이곳 저곳 아프다고 호소하는 일이 다반사다. 먼저 허리나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고 팔다리도 저리며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나아가 머리로 멎어지고 기억마저 떨어져 치매가 걱정된다고 호소한다. 또 일부는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병 등으로 약을 한 짐씩 먹기도 한다. 어찌 보면 노화로 인한 것이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불편과 고통은 가중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쓰러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아프다는 사실이 그다지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부모님들이 눈이 침침하다고 하면 눈이서 그러려니 하고 간과하기 쉽다.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 1위로 60대의 절반 이상과 75세 이상의 노인 대다수가 겪는 흔한 질병이다. 물론 노화 과정에서 신체는 모든 곳이 퇴화를 피할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눈은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관이다. 하지만 백내장은 다른 질환과 달리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면 다시 좋은 시력을 회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부모님의 시력은 괜찮은 지, 백내장은 없는 지 챙겨보는 것이 어떨까?

기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법조인



이한진 법무법인 지산 변호사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법조인이다. 국민은 참으로 희한한 법조인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한민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으므로 비상계엄은 헌법에 반한다. 비상계엄으로 국회 권한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계엄 직후 단행한 국회 통제도 위헌, 위법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무기를 소지하여 침입한 이상, 그로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은 완성되었다. 내란죄이다. 내란죄는 살인죄처럼 살인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가 아니라, 국헌문란이라는 구체적인 위법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는 범죄(위법범)이다. 그러므로 12·3 비상계엄으로 국헌문란이라는 위법이 발생한 이상 내란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설령 내란죄를 살인죄와 같이 결과범으로 보더라도(그러한 견해는 없다), 12·3 계엄으로써 이미 국헌문란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역시 내란죄 기수다.

어느 경우이든 내란죄 성립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이 합법이라고나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도 법조인이다. 법리를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도 후세무민하는 것인가. 후자일 것이다. 정치적 확산, 심리적 동요, 경제적 이익,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객관화된 지식에 해당하는 법리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므로 알면서도 후세무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법학에서의 견해 대립은 법률문장들의 다의(多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나온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일의(一義)적인 영역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정당한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 계엄의 합헌·합법의 논리를 펴고, 수사권을 운운하여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논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내란범의 변호인들도 법조인이다. 비상계엄 직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단 한마디 언급을 못하고 있는 집단이 또한 법원이다.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에 대하여 왜 말 한마디 못하는가. 법원은 정작 자기 구성원인 판사 체포가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는 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법원은 시류에 편승하는 판결을 내다가 그러한 시류가 변경되면 재심이나 다른 판결을 통해서 시정하곤 한다. 긴급조치 제9호, 인혁당 사건이 그런 예가 아닌가.

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더불어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작금의 사태를 보면 거리가 멀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하여 판사가 하루 이상을 고민할 일인가. 대통령 체포라는 중대한 일에, 판사가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에

만족할 것은 아니다. 계엄 직후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인 사실을 법원이 속히 판단하고 대국민 성명을 하였던 들, 헌법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12·3 사태가 비상계엄의 헌법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체 없이 발표하였던 들, 국민이 이렇게 들로 나뉘어 국격을 상실할 여지는 현저히 줄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 헌법재판소는 부끄럽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느닷없이 계엄세력들에 대한 체포·구속을 엄격히 하고 보석을 적극 허가할 것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위원도 법조인이다. 언제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로 전락하였는가. 합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놓고서도 그 집행을 게을리하는 공수처장도 법조인이다.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를 뜻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로써 하라는 의미다.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의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원리이지, '국민은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여야 대표들은 법치주의를 운운하면서 정략에 활용하고 있다. 여야 대표들도 법조인 출신 아닌가. 검찰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

봄이 오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더 이상 나라가 돌로 나뉘어 투쟁할 가치가 없다. 계엄 대란의 종식과 해결을 법조인들이 앞장서 해나가야 할 터이나 반대로 가고 있다. 이 시간에도 정의를 위해서 또는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법조인이 훨씬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는 한낱 수사에 불과하다.

社說

현직 대통령 첫 체포尹, 성실히 수사 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6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대통령이 됐다.

현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당연한 수사 절차지만 현직 대통령의 체포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만은 사실이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이에 무력충돌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 앞을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에 맞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국격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점은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진 어제 주시과 외환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시장이 먼저 이번 사태의 수습 행방에 대

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가 2차 영장을 집행한 것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는 물론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탓이다. 자진 출두가 아닌 체포에 따른 수사 자체가 국가 망신이자 국민에게는 상처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의 영장신청에서 이날 체포된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이미 공조수사 본부를 꾸렸고,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정한 '관련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수처의 수사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법를 가진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오직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불법임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해 마지막 자존심을 회복하길 바란다.

의대 정원 재검토 별개로 전남 의대 추진을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를 보이면서 지역에서는 자칫 전남 국립 의대 설립에 장애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정 갈등의 주 원인 중 하나가 의대 증원 문제인 만큼 새로운 의대 설립으로 인한 증원을 정부가 꺼릴 수 있다는 걱정인 셈이다.

다행히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문제를 애초 약속대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장은 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 의대 설립과 관련,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질의에 "변함이 없다. 교육부 사전절차도 조속히 하도록 하고, 2026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데 있어 같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

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했다. 이 때문에 전남은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과정에서 정원을 동결하거나 감축 혹은 약간의 증원에 그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경우 국립 의대 신설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남은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 큰 결단으로 통합 국립 의대인 '(가칭)국립한국제일대'를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광역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지역 의료 서비스 체계가 붕괴된 상태이다. 아이를 낳을 곳도 부족하고, 어린이를 치료할 곳도 거의 없다.

정부와 의료계는 이같이 전국에서 의료 인프라가 가장 뒤떨어진 전남의 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국립의대 추진을 지원해주길 바란다.

無等鼓

서울대는 법점 불가였다. 소위 'SKY'를 명문대라고 했지만, 'KY'는 조금 더 공부하면 어떤 여맹게든 따라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지만 'S'는 달랐다. 같은 시간을 공부했는데, 성적은 한참 앞에 있었으며, 실력 또한 공부로만 쌓기에는 턱월함이 있었다. 다만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전국 1% 석차 안의 수재들이 갖추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물론 예외는 있지만, '공감 능력'이었다.

출로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며,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는 자신만의 시각과 주장을 신봉한다는

역에서 서울대 출신들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후배들마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무려 35명의 국민의힘 의원 등 선배들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반헌법적인 계엄에 분노하고, 내란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들 서울대 출신들은 여전히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를 졸업한 김민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공청년단'과 그들이 구성했다는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나타나 모두를 어리둥절

하게 했다. 고시, 유학 등을 거쳐 검사, 판사, 관료, 교수 등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서울대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함이 꼬리를 문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한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백골단'처럼, 권력욕과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서울대 출신 정치인들도 시대착오적인 언행을 계속한다면 결국 지취를 감출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현성 경제·행정 부국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English/Chinese text and Korean text. Include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header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